

# 로마는 비전을 수립한다 - 열한 번째

예언의 삼중적 적용에 대한 이해: 2001년 9월 11일과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최종 시험 과정

Jeff Pippenger  
2024-08-30

1840년 8월 11일이 밀러가 채택한 규칙들을 확증했던 것처럼, 2001년 9월 11일 이후 보려는 이들에게는 Future for America가 채택한 예언적 원칙들이 이사야서 28장에 제시된 바와 같은 늦은 비의 참된 성경적 방법론임이 보였다. 거룩한 역사에 제시된 대로 개혁선 위에 개혁선을 적용하는 것은 2001년 9월 11일이 1840년 8월 11일의 반복임을 입증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가 1840년에 강림했을 때, 2001년에 있을 그의 강림을 예표했다는 것을 보았다. 이슬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면서 두 천사 모두 강림했다. 그 방법론의 효과에 남녀가 반응함에 따라 그 운동은 성장했다. 라오디게아적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지도부는 1989년 끝의 때에 제쳐졌고, 이제 그 교회는 마지막 시험 과정에 들어갔으며, 주께서 마지막 때의 대변인으로 삼기 위하여 셋째 천사의 운동을 선택하시기 시작하셨다.

말세를 위해 주어진 규칙들 가운데 핵심 규칙 하나는 예언의 삼중 적용이었다. 특히 당시 두드러졌던 것은 세 가지 화의 삼중 적용이었는데, 그것은 2001년 9월 11일의 사건을 매우 분명하게 뒷받침하였다. 그 진리가 정직하게 조사되었을 때, 진리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의 "옛 길들"로 인도되고 있던 이들에 의해, 예언의 성취와 더불어 셋째 천사의 운동이 채택한 예언 해석 규칙들의 타당성이 함께 확인되었다.

계시록 9장의 첫째 화의 역사에 대해 초기 선구자들이 올바르게 이해한 바는, 그것이 이슬람을 가리킨다는 것이었다. 거짓 선지자 무함마드는 그 역사에서 왕으로 여겨졌다. 그 역사에서 이슬람은 로마 제국을 공격했으며, 그들의 전쟁 방식은 특히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기습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 점에서 이슬람의 바로 그 전쟁 방식이 "assassin"이라는 단어의 어원적 뿌리를 제공했다고 이해되었다. 그 역사에서 이슬람은 로마의 군대에 피해를 입혔고, 그 기간은 150년의 시간 예언에 따라 마무리되었다. 그 시간 예언이 1449년 7월 27일에 끝났을 때, 둘째 화의 시간 예언과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때 391년 15일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기간 예언이 시작되어 1840년 8월 11일에 끝났다. 그 역사에서 이슬람의 예언적 역할을 대표한 통치자는 오스만이었는데, 그는 첫째 화의 역사에서 무함마드에 의해 예표되었다. 제9장은 둘째 화의 역사에서 이슬람이 로마의 군대를 살상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여전히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공격하는 전쟁 방식을 구사했지만, 그 역사에서는 화약이 처음 발명되어 사용되었으므로, 둘째 화는 암살자의 기습 공격으로 특징지어지는 전쟁 방식에 폭발물의 사용이 더해진 형태를 나타냈다.

2001년 9월 11일, 이슬람의 셋째 화가 갑자기 폭발물로 로마의 영적 군대를 강타했다. 그 사건은 여러 예언적 진리의 여러 줄기의 시작을 알렸지만, 이는 분명히 첫째와 둘째 화에

대한 두 선행 증언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 사건은 또한 1840년 8월 11일 밀러주의 역사에서 둘째 화에 대한 이슬람의 예언이 성취되고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강림하여 그 역사가 권능을 받았던 것처럼, 셋째 화에 대한 이슬람의 예언이 도래했을 때 그 날짜에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강림했음을 표시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이제 내가 뉴욕이 해일에 휩쓸릴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말이 돌고 있는가? 나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 나는 그곳에서 층층이 올라가는 거대한 건물들을 바라보며, '주께서 일어나 땅을 심히 흔드실 때 얼마나 무서운 장면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때 요한계시록 18장 1-3절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요한계시록 18장 전체는 땅에 임할 일들에 대한 경고이다. 그러나 나는 뉴욕에 어떤 일이 닥칠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빛을 받은 바 없다. 다만 나는 언젠가 그곳의 거대한 건물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뒤집고 뒤엎으심으로 무너질 것임을 안다. 내게 주어진 빛으로 알건대, 세상에는 파괴가 있다. 주께서 한마디만 하시거나 그의 강한 권능이 한 번만 닿아도,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장면들이 벌어질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906년 7월 5일.

그때 Future for America의 운동은 보려는 이들에게 밀러주의 운동과 평행한 것으로 여겨졌다. 셋째 화의 이슬람은 그 시점부터 그 기별의 주요 요소가 되었다. 영감은 계시록의 천사가 강림할 때 늦은비가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쳤다.

"늦은 비가 하나님의 백성 위에 내릴 것이다.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며,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비추어질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1년 4월 21일.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늦은 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열어 주시기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늦은 비의 주요한 근거가 되는 요엘서로 인도하셨다. 그 시점에 2001년 9월 11일 이후에 그 운동에 합류한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포도나무를 파괴하여 '한밤중의 외침'의 각성으로 이어지는 요엘서의 곤충들이 이슬람을 상징한다고 단정하였다. 그들은 그 곤충들이 로마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거나 보려 하지 않았다.

세 화와 관련하여 예언의 삼중적 적용을 인식함으로써 얻게 된 강력한 빛은, 곤충이 이슬람을 상징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거룩하지 않은 논리적 뒷받침을 더해 주었다. 늘 그렇듯이, 일단 사사로운 해석을 받아들이면 그 거짓 전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 속에서 성경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진다. 자기들의 견해를 지지하려는 과정에서 그들은 모형과 실체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신학과 성서학에서 "type"과 "antitype"라는 용어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예표하거나 전조하는 두 요소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 개념은 흔히 더 넓은 범주인 "그림자"와 "실체"에 속한다.

모형은 구약에서 신약의 대응하는 사건·인물·제도를 미리 가리키거나 예시하는 사건·인물·제도를 뜻한다. 그것은 상징적 전조로 기능한다. 실체는 그 모형의 성취이자 실현이다. 곧 모형이 미리 비춘 현실이다. '그림자'와 '실체'라는 개념은 모형과 실체의 관계에 상응한다. '그림자'는 (모형)을, '실체'는 (실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합니다. 골로새서 2:16, 17.

이는 율법이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요, 그것들의 참된 형상이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그 제사들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0:1.

2001년 9월 11일 이후, 요엘서와 네 가지 곤충으로 상징되는 교황 로마를 올바르게 식별함으로써 라오디게아적 재림운동의 점진적 파괴를 윤곽 짓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곤충들이 이슬람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세 화의 삼중 적용에 부당한 강조를 둘 뿐 아니라, 로마의 반형을 가리키는 예표들을 지목해 놓고 그 예표들이 사실은 이슬람을 지시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예표와 반형의 원리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예표를 왜곡하는 것이 가치 있는 수단이라고 믿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로마를 둘러싼 현재의 논쟁에서, 다니엘서 11장 14절의 '강도들'을 미국이라고 보는 잘못된 생각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예언의 삼중 적용과 형과 반형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또다시 드러났다.

'강도들'이 미국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려 할 때 '세 로마'에 대한 삼중 적용을 사용하여, 현대의 로마, 곧 로마의 세 번째 발현이 미국임을 입증하려 한다. 그들이 고의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언의 삼중 적용 규칙에 대한 맹목적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믿으며, 그들은 처음 두 로마의 예언적 특징을 끌어와 로마의 역사적 특징 하나가 현대의 로마를 식별한다고 주장한다.

이교 로마는 로마에 대한 세 가지 예언적 성취 가운데 첫 번째이다. 다니엘서 8장에서 이교 로마는 남성형의 작은 뿔이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교 로마는 세속 권세이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교 로마가 열 갈래의 왕국으로 분열된다.

로마의 두 번째 양상은 교황 로마로서, 8장에서는 여성형 '작은 뿔'로, 2장에서는 교권 정치술로, 7장에서는 모독을 말하며 세 뿔을 뽑는 뿔로 나타난다. 이교 로마는 단일한 권세이지만, 교황 로마는 이중의 권세로, 곧 이교 로마의 기존 정치 구조가 지닌 국가 권력 위에 군림하는 교황 교회를 가리킨다. 1798년에 교황 권세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으나, 교회로서 존재를 멈춘 것은 아니었고, 다만 이전에 장악하던 세속 권력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성경 예언의 '짐승'이기를 그쳤을 뿐이다.

둘째 로마는 교황 로마이며, 신성모독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통제할 수 있었을 때에만 성경 예언의 세력(짐승)으로 기능했다. 첫째 로마는 단일한 권력이었고, 둘째 로마는 이중의 권력이었으며, 셋째 로마는 삼중의 권력이다. 로마의 세 가지 양상은 예언의 각 삼중 적용과 동일한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 예언적으로는 세 가지 화, 세 바벨론, 세 로마, 세 엘리야가 있다. 표상과 실상의 관점에서, 어떤 삼중 적용에서든 처음 두 가지 양상은 세 번째 성취의 그림자를 제공하는 표상들이며, 그 세 번째 성취는 예언의 삼중 적용의 실상이자 실체이다.

로마에 관해 말하자면, 처음 두 로마의 특징은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 모두가 통치자에게 폰티팩스 막시무스라는 칭호를 부여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현대 로마의 통치자의 칭호도 폰티팩스 막시무스일 것이며, 이는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도 부여된 적이 없는 칭호다. 처음 두 로마는 자신들의 역사적 시기에 왕좌에서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세 가지 지리적 장애물을 극복했다. 1798년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세 가지 지리적 장애물을 극복했다는 증거는 없다.

처음 두 로마는 자신들이 최고 권세로 통치할 특정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다. 다니엘 11장 24절에서 이교 로마는 '한 때', 곧 360년 동안 통치하는 것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부터 서기 330년까지이다. 또한 교황 로마는 세 뿔이 제거된 이후 1,260년, 곧 538년부터 1798년까지 통치한 것으로 거듭 제시된다. 이사야 23장에서 미국은 한 왕의 날과 같이 상징적 70년 동안 통치하는 것으로 제시되지만, 그 상징적 70년 통치에 앞서 세 가지 지리적 장애물을 제거한 적은 없다.

현대의 로마는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2절에서 남방 왕, 영화로운 땅, 애굽이라는 세 가지 지리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으로 묘사되며, 그 세 장애물이 패배하여 로마에 복종하게 되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을 이루게 된다. 요한은 또한 교황권의 짐승이 입은 치명적 상처가 치유되고 그 후 상징적 42개월 동안 통치한다고 알려준다.

나는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마치 죽을 상처를 입은 것을 보았는데,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고, 온 땅이 그 짐승을 놀라며 따랐다. 그들은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을 경배하였고, 또 짐승도 경배하며 말하였다.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 누가 능히 그와 싸울 수 있으랴?' 또 그에게 큰 말과 모독을 말하는 입이 주어졌고, 마흔두 달 동안 계속할 권세가 주어졌다. 요한계시록 13:3-5.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된 후 상징적인 42개월 동안 통치하는 짐승은 로마 권세이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은, 어린 양 같은 뿔을 가진 짐승으로 대표되는 권세가 '땅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로 하여금 교황권을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거기서 교황권은 '표범과 같은' 짐승으로 상징된다. ... 구세계와 신세계 모두에서, 로마 교회의 권위에만 근거한 일요일 제도에 경의를 표함으로써 교황권은 존송을 받게 될 것이다." The Great Controversy, 578.

이교, 곧 첫 번째 로마는 다니엘서 11장 24절의 성취로 360년 동안 군림했으며, 다니엘서 8장 9절의 성취로 세 가지 지리적 장애물을 제거한 뒤에 그렇게 했다.

교황권, 곧 제2의 로마는 여러 성경 구절을 성취하며 1,260년 동안 절대적 권세로 통치했으며, 다니엘 7장 8절과 20절을 성취하면서 세 가지 지리적 장애물을 제거한 뒤에 그렇게 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현대 로마는 남방 왕을 정복하고, 41절에서는 아름다운 땅을 정복하며, 42절에서는 애굽을 정복한다. 현대 로마는 다니엘서 11장의 북방 왕이다.

첫 번째 로마인 이교 로마는 박해하는 세력이었고, 두 번째 로마인 교황권 로마도 박해하는 세력이었으므로, 현대의 로마 역시 박해하는 세력이 될 것이다.

미국은 현대 로마가 주도하는 세 번째 박해에 가담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교황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마지막 때에 미국이 교황권과 맺게 될 관계의 한 특징을 드러낼 뿐이다.

미국이 말세의 '네 백성의 약탈자들'이라고 주장하려는 이들은, 세 가지 로마에 대한 삼중 적용을 동원해 미국을 잘못 동일시한다. 그들이 삼중 적용의 맥락에서 사용하는 그 결합 있는 방법은, 처음 두 로마의 한 특징을 식별하고, 로마 그 자체가 아니라 로마의 예언적 특징이 곧 세 번째 로마라고 주장하는 데 기반을 둔다.

그들은 서기 321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제정한 최초의 역사적 일요일 법령과 서기 538년 교황 로마의 일요일 법령을 지목하여, 미국에 곧 시행될 일요일 법령이 미국을 현대의 로마로 규정한다고 주장하며, 또한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들'을 볼 때 도망하라는 예수의 경고를 일요일 법령과 동일시함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적용을 더욱 뒤섞는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은 마지막 때의 두 가지 일요일 법령을 가리키지만, 그것은 도망하라는 경고이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전혀 다른 상징이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은 마지막 때에 두 가지 구체적인 일요일 법령이 있다는 사실조차 다루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그의 집에서 무엇을 가져가려고 내려오지 말라. 밭에 있는 자도 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도, 또 안식일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4:15-20.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은, 이교도 로마가 서기 66년부터 70년에 걸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어 성전과 도성을 파괴할 때 닥칠 멸망을 피하여 언제 도망해야 하는지를 예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징조였다.

예수께서는 경청하던 제자들에게 배교한 이스라엘 위에 내릴 심판들, 특히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응보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선언하셨다. 그 끔찍한 절정에 앞서 틀림없는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었다. 그 두려운 때는 갑작스럽고도 신속히 닥쳐올 것이었다. 그리고 구주께서는 그의 따르는 자들에게 경고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마태복음 24:15,16; 누가복음 21:20,21. 로마의 우상 숭배적인 군기들이 성벽 밖 몇 펄롱까지 뻗어 있는 거룩한 지역에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도피함으로 안전을 찾아야 했다. 그 경고의 표징이 보이면, 피하려는 자들은 지체해서는 안 되었다. . .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리스도인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고, 그의 말씀을 믿은 모든 이들은 약속하신 징조를 주시했다. . .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 곧 요단강 건너편 페레아 땅에 있는 펠라라는 도시로 피신했다." 대쟁투, 25, 30.

서기 538년이 가까워지자,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이교의 종교와 타협함으로써 부패했음을 깨달았고, 그리스도의 경고에 근거하여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 주어진 빛과 더불어, 1,260년의 예언적 광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예언으로 미리 알려진 종교계의 중요한 발전들이 일어날 것이었다. 사도는 이렇게 선언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온 것처럼 보이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였다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배교가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인 불법의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니, 그는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이나 숭배되는 모든 것에 대적하며 스스로 그것들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인 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느니라.'

바울의 말은 곡해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가 특별한 계시로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고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경고했다고 가르쳐서는 안 되었다. 그런 주장은 신앙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니, 실망은 종종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형제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자기에게서 온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계하였고, 이어 선지자 다니엘이 그렇게 분명히 묘사한 교황권이 아직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 권세가 그 치명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일을 수행하기 전에는 교회가 주의 오심을 바라보는 것은 헛될 것이다.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참된 교회를 덮칠 시련들은 심히 혹독하였다. 사도가 기록하던 바로 그때에도 이미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모든 불의의 미혹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관해 사도가 한 진술은 특히 엄숙하다. 그는 진리의 메시지를 고의로 거절할 모든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선언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시리니,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로 보내시는 경고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거절할 수 없다. 이러한 경고를 외면하기를 고집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거두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미혹에 맡겨 두신다. 사도들의 행적, 265, 266.

이교와 교회의 타협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황 로마와 분리하도록 이끈 경고 징조였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도피하라는 경고에 바울이 보탠 빛이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의 'the daily'가 이교 로마를 가리킨다고 이해하게 된 바로 그 구절이었다는 점이다. 교황 로마가 왕좌에 오르도록 먼저 이교 로마가 억제하다가 이어서 물러나는 예언적 관계는 반드시 이해해야 할 진리였는데, 그 예언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강한 미혹을 가져오게 된다. 화이트 자매도 같은 역사를 언급한다:

성직자의 예복으로 위장되어 교회에 도입된 기만과 가증한 것들에 맞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신실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사적인 투쟁이 필요했다. 성경은 신앙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종교의 자유라는 교리는 이단으로 불렸고, 그 옹호자들은 미움받고 금지와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오랜 격렬한 갈등 끝에, 소수의 신실한 이들은 그 교회가 여전히 거짓과 우상숭배에서 스스로 벗어나기를 거부한다면 배교한 교회와의 모든 유대를 끊기로 결의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기 영혼에 치명적인 오류를 감히 용납하지 않았고, 자녀와 손자들의 믿음을 위태롭게 할 본을 보이는 일도 하지 않으려 했다. 평화와 일치를 확보하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양립할 수 있는 한 어떤 양보도 기꺼이 하려 했지만, 원칙을 희생하여 얻는 평화라면 너무 큰 대가라고 느꼈다. 만일 진리와 의를 타협해야만 일치를 이룰 수 있다면, 차라리 불일치가, 심지어 전쟁이 있더라도 좋다." 대쟁투, 45, 46.

말세에 미국과 교황권 사이의 예언적 관계는, 서기 538년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의 관계에 대해 바울이 지적한 바에 의해 예표되고 강조되어 왔다. 로마에 대한 삼중 적용에서, 이교 로마는 도망해야 할 표징으로 '멸망의 가증한 것'을 지목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했고, 교황 로마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했다. 화잇 여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또 다른 성취를 지적한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마음을 붙이거나 재물을 쌓아 둘 때가 아니다. 머지않아 초대 제자들처럼 우리는 황량하고 외딴 곳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로마 군대의 예루살렘 포위가 유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피난의 신호였던 것처럼, 우리 나라가 교황의 안식일을 강제하는 칙령을 통해 권세를 행사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그때는 대도시를 떠나고, 이어서 산중 외딴 곳의 은거처로 들어가기 위해 소도시들도 떠날 준비를 할 때가 될 것이다. 증언, 제5권, 464쪽.

그리스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경고는 예루살렘에서 언제 도피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었다. 5세기와 6세기에는 그 경고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광야로 피신하게 했다.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어, 그곳에서 그녀가 천이백육십 일 동안 양육을 받았다. ... 또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져, 뱀을 피하여 자기 처소인 광야로 날아가,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을 받았다. 뱀은 그 여자를 뒤쫓아 자기 입에서 홍수처럼 물을 토하여, 그 여자가 그 물에 휩쓸려 가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열어, 용이 자기 입에서 토한 물을 삼켜 버렸다. 이에 용이 그 여자에게 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그녀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나아갔다. 요한계시록 12:6, 15-17.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으로 드러내신다. 이는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이다. 교황 로마의 역사에서 멸망의 가증한 것에 대한 경고는, 교황권이 거룩한 곳에서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인식되었다.

이 경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며, 각 기록은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마태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하고, 마가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하며, 누가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한다.

세 가지 증언은 함께 적용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누가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것을 언급함으로써, 서기 66년에 이교 로마가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즉시 도망해야 한다는 경고를 지적한다. 마태가 말한 ‘거룩한 곳’은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드러내는’ ‘불법의 사람’을 지목한 것과 상응하며, 이로써 ‘멸망의 가증한 것’이 교황권에 의해 성취됨을 나타낸다. 마가는 ‘서지 못할 곳에 선’ 멸망의 가증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말세에 재림운동에 주어진 도망하라는 경고와 상응한다. 이 경고들 가운데 둘은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명령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모두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해야 할 때를 알리는 표징을 다룬다.

‘네 백성을 약탈하는 자들’이 미국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왜곡해 둔 ‘삼중 적용’의 오용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미국의 일요일법에서 성취될 때, 그때 시행되는 일요일법이 미국을 현대 로마로 규정한다고 본다. 이는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가 모두 과거에 일요일법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 잘못된 적용의 문제는, 이교 로마의 주일법은 서기 321년에 시행되었지만 이교 로마의 “멸망의 가증한 것”의 성취는 서기 66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며, 이는 321년의 주일법보다 255년이나 앞선 때였다. 마찬가지로 “불법의 사람”을 낳게 된 타협은 바울 시대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바울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음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교황권의 주일법은 그로부터 4세기가 넘게 지난 뒤에야 등장했다. 예언의 삼중 적용에서 첫 두 증인은 마지막 때에 있을 셋째 성취의 특성을 규정한다. 두 역사적 증인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성경의 세 기록을 근거로 할 때, 마지막 때의 “멸망의 가증한 것”은 주일법의 강제 시행이 아니라 도피하라는 경고를 가리킨다.

다음 글에서는 예언의 삼중 적용과 관련하여 확립되어 있는 규칙들의 맥락에서 그 적용이 왜 결함이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경고의 맥락에서 일요일법을 특정하는 것이 왜 예언적 역사를 왜곡하는 것인지 분석할 것이다.

이교와 기독교 사이의 이 타협은 예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자로 예고된 ‘죄의 사람’의 출현을 가져왔다. 그 거대한 거짓 종교 체계는 사탄의 권세가 빚어낸 걸작—그가 자기 뜻대로 땅을 다스리기 위해 스스로 보좌에 앉으려 한 노력의 기념비다. 대쟁투, 50.